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인연관계란 엄숙한 것이다

북소리

[시] (홑첨지) 달바위 너에게 묻노라. 이제로부터 이천년 전에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북을 쳐서 호병 십만을 살수에서 무찌른 사실을 아느냐.

(달바위) 압니다.

(홑첨지) 그때 두둥 울렸던 북소리는 어디로 쫓아왔느냐.

(달바위) 북으로부터 쫓아왔습니다.

(홑첨지) 아니다.

(달바위) 채로부터 쫓아왔습니다.

(홑첨지) 아니다.

(달바위) 북과 채가 마주친 데로부터 쫓아왔습니다.

(홑첨지) 어찌 소견머리가 그 따위냐. 아니다.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천 년 전에 을지문덕 장군이 호병 십만 명을 살수에서 몰살시켰습니다. 말 들어 보니 어디에 동상 세워진다고 합니다. 동상 세워 드릴 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걸 내가 비유를 했습니다. 이천 년 전에 니 북소리 들었느냐. 이거 내가 비유로 해 놓은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북소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북에서 나왔습니다. 아니다. 채에서 나왔습니다. 아니다.

채하고 북하고 마주쳐서 인연이 돼서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내가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앞 소식이에요. 소리는. 그 말입니다. 마주친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날카롭다면 이 자리에서 답 나옵니다. 선재 보살, 어디 갔노? 거?? 알아들었나? 그 목소리 어디서 나왔노? 채와 북이 인연은 되어 있다. 인연. 그렇지? 만약 인연이 되어 있다면 바로 인연이게? 어디서 나왔노? 좋다.

[시] (달바위) 마음으로부터 쫓아왔습니다.

(홑첨지) 남의 말을 도적질하지 말라.

마음으로부터 쫓아왔습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할 테면 육조 혜능 대사가 삭발을 하려고, 다시 말하자면 중이 되려고 법성사로 가는데 문 앞에 세워 놓은 깃발이 펄럭거려. 두 중이 있다가 하는 말이 기가 펄럭거린다 아니다 바람이 펄럭거린다 기가 펄럭거린다고 해도 맞는 말이고 바람이 펄럭거린다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육조 혜능이 하는 말이, 두 스님 그거 아닙니다. 당신네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이 말을 빌어서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기가 펄럭거리는 거다 바람이 펄럭거린다고 하면 마음이 움직인다고 해도 돼. 마음도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도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물론 이것도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일이에요. 이런 일은 하

> **모습은 인연관계로 굴리어져**
> **하나의 용서도 없어**
> **용서 빌 사람도 없고**
> **용서 받을 사람도 없어요.**
>
> **나사못 하나만 틀려도**
> **비행기가 떨어져**
> **그거 무섭습니다.**
>
>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 **법성계 안의 소식**

루에도 수십 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어. 꼭 기만 움직거려야 펄럭거리는 건가요? 주장자도 펄럭거리고 있거든. 바람에 나무도 흔들흔들하고 있거든. 하루에 수십 번 여러분들이 당해. 당해도 여러분들이 모를 따름이여.

그러하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금시 그 말입니다.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니 니가 남의 말 도둑질 하지 마라. 육조 대사의 기를 보고 얘기한 그걸 본 따지 마라. 니 살림살이를 내 놓아라 그 말입니다.

[시] (달바위) 모르겠습니다.

(홑첨지) 힌트를 줄 터이니 자세히 들어라. 눈보라치는 산기슭에 개구리가 개골개골 하구나.

(달바위) 알았습니다.

이거 말해도 몰라. 그러니 천상 그 경계를 한 번 인도를 해 줘야 돼. 물길을 조금 뚫어줘야 돼. 조금만 뚫어주면 나중에 가서는 줄줄 나오다가 홍수가 되는 법이에요. 둑마저 확 날려버려. 그래서 힌트를 준 것이거든. 눈보라치는 산기슭에 개구리가 개골개골 한다. 아니, 겨울에 개구리 있습디까? 겨울에 개구리가 없거든. 그러나 나는 있어. 나는 있기 때문에 힌트를 줬어. 눈보라 치는 산기슭에 개구리가 개굴개굴하는 이 말마디에 얼붙어서는 이 답이 안 나와. 다른 거도 다 그래요. 답은 말마디 밖에 있거든. 참 그야말로 누리의 바탕을 알아. 알아서 허공중에 이루어진 춘하추동 사시 이것까지라도 전부 명자거든.

허공중에 이루어진 모든 명자가 전부가 실답지 않은 하나의 환상계에 지나지 못하다 말이여. 다시 말하자면 법성계에 이루어진 모든 법이, 법성계 중에서 굴리어지는 일체법이 환상에 지나지 못하다. 사실로 환상이거든. 이 도리를 뼈저리게 느껴야 이 답이 나옵니다. 그만 아는 것만 가지고서 어디서 들은 대로 생각한 대로 이건 안 됩니다. 솔직한 말로 들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다간 이거 죄 범합니다.

왜 그러느냐. 인연관계라는 것이 엄숙하거든. 모습은 인연관계로 굴리어지는 것이거든. 하나의 용서도 없어요. 용서 빌 사람도 없고 용서받을 사람도 없지만 그대로 비행기가 허공에 뜨는 거예요. 나사못 하나만 틀려도 비행기가 떨어져. 그거 무섭습니다.

그러하니 자, 눈보라치는 산기슭에 개구리가 개굴개굴 해.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법성계 안의 소식이라 말이여. 법의 성품의 세계, 법성계. 법성계 내의 소식이에요. 무슨 말을 했든지 법성계 안의 소식 아니에요? 이렇다면 내가 이 글을 쓰는데 있어서 눈보라치는 산기슭에 개구리가 개골개골 이 말 하고도 남아요. 물론 그만 이것만이 전부라고 해서 어쩌고 어쩐다면 택도 없는 소리라고 거부할 겁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시아문, 무얼 들었다는 것일까"

7-2. 참회진언

불교에서는 이 음성이 어떻게 다루어졌을까? 불경에는 번번히 여시아문(如是我聞)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와 같은 것을 나는 들었다' . 무엇을 들었다는 것일까.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직제자를 존칭하여 성문(聲聞)이라고 일컫는다. 성문이란 '소리를 들었다' 는 것인데, 들었다는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이른 것이다. 이로보아 불교에서 음성을 중요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문은 직접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은 대제자(大弟子)라는 뜻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불교를 나눈다면 부처님 말씀을 들은 불교라는 뜻으로 문불교(聞佛敎)와 부처님의 제도를 어떻게 차렸느냐 하는 제불교(制佛敎)의 두가지가 될 것이다. 제도상의 문제는 그 뒤 오늘날까지 많이 논의되는 바인데, 여기서는 계율(戒律)이 중요시되어 왔다.

부처님의 정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부처님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받들어 왔느냐? 이러한 문제는 전불교(全佛敎)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옳을 것이다.

불멸 후 2백년이 지나 대천(大天)이라는 큰스님이 나셨는데 이 분은 도인성고기(道因聲故起)라는 말씀을 하셨다. 도는 소리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므로 소리가 없으면 전도가 되지 않는다. 도가 펴지지를 않는다. 전도니 포교니 하는 것이 모두 다시 말하자면 음성으로써, 음성을 기록한 문자로써 얘기되는 것이다.

불교의 교리(敎理)가 전도로써 알리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해명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이는 부처님 당시에나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모든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시하였던가 하는 것을 알게 한다.

불멸(佛滅) 후 천년이 지나 비밀 불교(秘密佛敎)가 흥왕한다. 이 밀교(密敎)의 근원은 물론 불타(佛陀)재세시에, 상응부경전(相應部經典)에 부처님의 신변불가사의(神變不可思議)한 위덕을 칭양 찬탄 우다나(優陀那)에서 나오는 모든 신비성(神秘性)을 말한데서 찾을 수 있는 바이지만 이 요소는 후대에 이르러 밀교가 가지(加持)하는 그곳에서 한층 더 승화(昇華)하는 이상(理想)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밀교의 직접적인 근거는 불멸후 7백년대에 나신 용수보살(龍樹菩薩)에게서 얻어진다. 용수보살이 이런 대신비의 법문(法門)인 진리를 어디서 열었느냐 하는 것이 밀교에서 일컫는 용수보살의 남천축(南天竺)의 철탑개안(搭鐵開眼) 이라는 것이다. 쇠로 된 보탑(寶塔)을 열었다는 것이다. 용수보살이 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대 비밀의 법장(法藏)을 진리의 고방을 알아내어 열 사람이 없었다 한다.

밀교에서 음성을 다루는데는 성자관(聲字觀)이라는 한 테마를 제출하고 있다. 성자관에 의하면 우리들의 음성(音聲)이란 것은 한정 없이, 헤아릴 바가 없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며 이 음성의 변화로써 사물의 움직임을 잘 포

> **성문은 부처님 말씀을**
> **직접 들은 대제자**
>
> **불멸 2백년 후의 대천 스님**
> **"도는 소리로부터 일어난다**
> **소리가 없으면 전도 안돼"**
> **음성과 문자로 포교 가능**
>
> **밀교의 성자관에 의하면**
> **음성을 다양한 변화표현**
> **불멸 천년후 비밀 불교 흥왕**
> **용수보살이 비밀의 법장 연**
> **'남천축 철합개안' 밀교 근거**

착 전달토록 되어 있지만, 통털어 대별한다면, 결국 이를 두 가지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모음, 홀소리고 다른 하나는 자음(子音), 닿소리다. 모음은 보다 더 근원적이고 ㅏ·ㅓ·ㅗ·ㅜ·ㅡ·ㅣ 하는 등의 소리, 자음은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 등이다. 우리나라 세종대왕께서는 이를 28음으로 정리하셨지만 인도에서는 50 음으로 되었다. 모음과 자음을 합해서 50 음을 내고 있다. 그런데 모음은 자음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모음 가운데서도 무엇이 제일 기본음이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한글에서 세종대왕이 제정한, 점 찍은 '·' 자, 이것이 바로 그것이 된다. 범어에서는 이를 아(짧게)라고 발음한다. 아-가 아니다. 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종대왕의 점찍은 '·' 그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세종대왕은 이를 훈민정음에서 천(天)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하늘을 표시했다는 뜻 보다는 하늘이란 지경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위치를 가리킨 것이다. 위치에는 장단 · 고저 · 대소라는 것이 없다. 다만 위치 그것을 지정하였을 따름인 것이다. 위치를 지정하였다는 것. 그런데 이 위치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위치에는 다른 위치가 비벼들 수 없으면서 그 스스로 완성되어 있다. 극소이면서 극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써 세종대왕께서는 이를 하늘이라고 지칭하신 것 같다. 이는 나의 주장이다.

모든 음 가운데 이 '·' 자, 우리가 보통 속된 말로 아래아 '·' 자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음의 중핵이 된다. 모든 법문은 자음에 모음이 붙어서 낱말이 되고, 낱말이 여러개 구성되어 구절이 되고, 구절이 합하여 한 문장을 이룬다. 한 문장은 하나의 사상을 완전히 표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진리란 것은 이 자음과 모음이 종횡무진으로 서로 읽히어들어 그 진리의 내용을 외면적으로 감싸서 우리에게 알도록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장은 보재기와 같은 하나의 도구나 기관인데, 그리고 보면 음성도 역시 우리들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충분히 하게끔 하고 또 남의 의사표시를 알아 듣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일 따름이다. 그것을 분해하면 자음과 모음이고 또 자음보다는 모음이 더 근원적이고 모음 가운데는 기본음이 '·' 란 것으로 낙착된다. '·' 이것은 아도, 어도, 오도, 우도, 으도, 이도, 온통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근본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대일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인재불사 포교제일 불국정토 건설의 기치를 걸고
한마음 한 뜻으로 수행과 정진을
함께 하실 스님들을 모십니다.

총무원장 금강성련 합장

전화 : 053)313-3393, 053)425-3393
총본산 : (총무원)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579-3
(아름다운인연 성련사)

영혼의 소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금강성련스님의 철구

출가하여 승이 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편안하고 한가함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요.
따뜻한 옷과 잠자리 및 배불리 먹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다고 명예와 이익을 구함도 아니요.
번뇌를 끊기 위함이요.
부처님의 지혜를 잇기 위함이요.
삼계에서 벗어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 서문 중에서
(네이버,다음에서 아름다운인연 성련사)

도서출판 아름다운인연 |
저자 금강성련스님 | 값 15,000원 | 223쪽
계좌안내 : 농협 355-00071-0624-33 (성련사)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